

부루세라백신접종 젖소의 유·조산 예방치료요령

농림부

최근 제주도의 한우 및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도 일부지역 젖소에서 유·조산 발생이 부루세라 백신접종과 개연가능성이 있으나, 소의 유·조산 발생원인은 세균성, 바이러스성, 원충성 등 그 요인이 매우 다양하여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 특별대책반에서는 정확한 발생 원인규명 중에 있으나 농가의 우선 예방치료 조치로서 항균제 치료 및 철저한 소독 등을 통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치료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.

1. 유·조산 발생농가의 예방 및 치료

백신접종 농가에서 유·조산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유 직전후에 테트라사이클린, 스트렙토마이신 또는 아미카신 등 항균제를 3일이상 주사하면 유·조산 예방치료 효과가 있습니다.

2. 후산정체 및 불임증 치료

유·조산한 소는 저농도의 베타딘, 루골액 등을 이용하여 후산을 제거한후 자궁세척을 실시하는 동시에 항생제로 치료하여 조기에 자궁이 회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이렇게 치료를 실시하면 자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, 수정란이 자궁내에 착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정이 정상적으로 오며 수정도 잘될 것입니다.

유·조산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태반, 양수 및

분비물을 매몰, 소독 등을 실시하여 사료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.

3. 일반적인 유·조산시 위생관리 요령

- 유·조산시 태반, 양수 및 후산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에 접촉을 피할 것.
- 축사 바닥의 소독을 유·조산후 3~5일 동안 실시 할 것.
- 균형적인 영양분을 섭취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할 것.
- 항생제 치료등 후산처치를 신속히 실시 할 것.
- 개체별 번호, 질병 및 수정 유무등을 반드시 기록 할 것.